

‘보이지 않는 손’은 어떻게 인간 본성의 차원에서 작용하는가?*

—스미스와 버틀러의 인성론 비교를 통한 탐구—

김 경 민**

- I. 문제의 제기
- II. 스미스와 버틀러의 인성론 비교의 필요성
- III. 스미스와 버틀러의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
- IV. ‘보이지 않는 손’의 인간 본성 차원에서의 작용 방식
- V. 맺음말

• 국문초록

현대의 정치·경제적 질서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개념은 최근 스미스 사상의 종교적 맥락을 중시하는 연구자들에 의해 신적 섭리로 해석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섭리가 사회적 차원에서 구현되는 과정에서 인간 개인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스미스보다 이전에 영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신학자이자 도덕 이론가인 조셉 버틀러

* 이 논문은 초고는 Wake Forest University의 Eudaimonia Institute에서의 단기 방문 연구 중에 발표되었다.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연구소 측의 James R. Otteson 교수님과 유용한 심사평을 보내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는 인간 본성 차원에서 신적 섭리가 구현되는 방식을 종래의 신학자들과 달리 비교적 자연적이고 세속적인 언어와 경험적인 접근법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논문은 스미스와 버틀리의 인성론 비교를 통해서 섭리가 인간 본성 차원에서의 작용한다고 스미스가 이해했던 방식을 더욱 설득력 있게 재구성해 보고, 이를 통해 그의 ‘보이지 않는 손’ 개념에 내포된 윤리적 함의를 재조명한다.

• 주제어

에덤 스미스, 조셉 버틀리, 보이지 않는 손, 신적 섭리, 공정한 관찰자, 양심

I. 문제의 제기

애덤 스미스(Adam Smith)가 『도덕감정론』, 『국부론』¹⁾ 등에서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을 언급한 것은 200년도 더 된 일이지만,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개인의 자유로운 사익 추구가 공익의 증진으로 이어진다는 그의 주장은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시장질서의 공고화와 근대 경제학의 성립,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 정치질서를 규정하고 있는 자유주의 정치사상의 이념적 정당화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적, 정치적 질서는 지금까지도 상호의존적으로 서로를 강화하며 현대 사회의 시스템을 공고하게 구축해오고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다. 출간된 시점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보이지 않는 손’은 신적 섭리(divine providence)²⁾로 해석되었고, 『국부론』을 포함한 스미스의 저서들은 신학적 관점에서 독해되었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주로 경제학 영역의 세속적인 이론적 장치로서 기능하기 시작했다. 특히 스티글러(George J. Stigler), 프리드먼(Milton Friedman)으로 대표되는 시카고학과 경제학자들은 시장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 정부의 시장 개입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차용하였다.

1) 이 논문의 『도덕감정론』의 텍스트는 한길사에서 출간한 김광수 교수님의 번역본을, 『국부론』의 텍스트는 비봉출판사에서 발간한 김수행 교수님의 번역본을 참고하여 저자가 원문을 직접 번역하였다. 따라서 두 저서의 인용시 한글 번역본, 영어 원문 양쪽 모두의 확인이 용이하도록 쪽수가 아닌, ‘부. 편. 장. 절’의 방식으로 작성하였으며, 두 책의 영어 원제(*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를 고려하여 각각 ‘TMS’, ‘WN’으로 표기하였다. 예를 들어, 『도덕감정론』 1부 2편 3장 4절의 경우는 ‘TMS, I.ii.3.4’로 표기한다.

2) 섭리(providence)란 라틴어 ‘providentia’에서 유래된 단어로, 어원적으로는 ‘미리(pro) 보다(videre)’라는 뜻을 지닌다. 기독교 신학에서 섭리는 미리 정해진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모든 피조물들에게 적용되는 신의 예지적 다스림을 의미한다.

이들은 국가가 개인이 오직 자신의 이익을 자유롭게 추구하게 허용만 하면 시장의 자율적 기제에 의해 공동체의 모든 사람에게 최선의 결과가 돌아간다고 스미스의 주장을 해석하였고, 이러한 해석은 대중적으로도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이처럼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론적 장치로서 활용되었던 ‘보이지 않는 손’은 최근 역사적 맥락을 중시하는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종교적 관념과 결부되어 연구되기 시작했다.³⁾ 이들이 스미스 사상의 신학적 맥락을 강조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의 저작에서 다양한 종교적, 신학적 표현들을 찾아볼 수 있다. 신(God, Deity)이나 섭리(providence)를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단어나 신적인 속성을 나타내는 형용사인 신적인(divine), 신성한(sacred)은 세는 것이 별 의미 없을 정도로 자주 등장하며, 간접적으로 섭리의 주재자를 가리키는 “자연의 창시자(the Author of nature),”⁴⁾ “자연의 위대한 지휘자(the great Director of nature),”⁵⁾ “합법적인 통치자(a lawful superior)”⁶⁾ 등의 다양한 표현도 비교적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둘째, 스미스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다수의 학자들이 스미스의 저작들을 신학적으로 독해하였다.⁷⁾ 이러한 이유로, 한 연구자의 주장처럼, 스미스의 주장을 종교적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은 사실 알고 보면 “새로운 관점(new-view)”이 아닌 “아주 오래된 관

3) 애덤 스미스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종교적 맥락을 바탕으로 스미스의 사상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을 소위 “새로운 관점(new-view)”이라고 지칭한다. 이러한 부류의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하라: James E. Alvey, “The ‘new view’ of Adam Smith and the development of his views over time”, in Geoff Cockfield, Ann Firth, John Laurent eds., *New Perspectives on Adam Smith’s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Cheltenham & Northampton: Edward Elgar, 2007, pp. 66~83; Paul Oslington, “The ‘New View’ of Adam Smith in Context”, *History of Economics Review*, Vol. 71, No. 1, 2018, pp. 118~131.

4) *TMS*, II.i.5.10, II.iii.intro.6, II.iii.3.2, III.2.31, III.5.7, VII.ii.1.16, VII.ii.2.13.

5) *Ibid.*, II.i.5.10, VI.ii.3.4, VII.ii.1.18.

6) *Ibid.*, III.5.7, III.5.13.

7) Paul Oslington, “Introduction”, in Paul Oslington ed., *Adam Smith as Theologian*, New York and Abingdon: Routledge, 2011, p. 3.

점(very old-view)”이다.⁸⁾ 셋째, 스미스의 글래스고(Glasgow) 대학 재직 시절, 그의 도덕철학(moral philosophy) 강의에서 자연신학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스미스의 제자 밀러(John Millar)의 기록에 따르면 스미스의 도덕철학 강의는 “네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자연신학, 윤리학, 법학(또는 정치학), 경제학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자연신학 강의에서 스미스는 “신의 존재와 성격에 대한 증명과 종교의 근거가 되는 인간 심성의 제원리를 다루었다.”⁹⁾ 다양한 영역의 이론 간의 유기적 통합과 체계적인 학문을 지향했던 스미스가 윤리, 정치, 경제에 대한 강의 이전에 자연신학을 가장 먼저 강의했다는 것은 신학적 요소가 어떠한 측면에서 그의 윤리, 정치, 경제 이론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 제시될 수 있다.¹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미스 저작 속의 종교적 요소를 인정하는 몇몇 영향력 있는 연구자들은 스미스의 전체 이론이 반드시 그러한 종교적 측면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으며,¹¹⁾ 이러한 표현들을 제거한다 해도 스미스의 인간과 사회에 대한 경험적 탐구의 가치가 훼손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¹²⁾ 이는 여전히 스미스의 목적론적 섭리관과 그의 인간과 사회에 대한 경험적 탐구를 유기적으로 연결 지어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

8) Paul Oslington, “The ‘New View’ of Adam Smith in Context”, p. 118.

9) 김광수, 「아담 스미스의 자연신학과 그 방법론적 의미」, 『경제학연구』 43집 2호, 1994, 152쪽.

10) 18세기 영국의 도덕철학은 “오늘날 사회과학으로 불리는 학문 분야, 이를테면 인류학, 사회학, 심리학, 경제학, 역사학 등(...)이 분화되기 전에 전체를 포괄하는 탐구 분야”였으며, “사회현상을 일으키는 소수의 일반원리를 밝혀내고 그 원리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해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 학문”이었다. 이영석, 『지식인과 사회: 스코틀랜드 계몽운동의 역사』, 아카넷, 2014, 237~239쪽. 당시 스미스의 도덕철학 강의를 구성했던 4가지 분야 역시 소수의 일반원리를 중심으로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11) Samuel Fleischacker, *On Adam Smith's Wealth of Nations: A Philosophical Compan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pp. 138~142.

12) Knud Haakonssen, *The Science of a Legislator: The Natural Jurisprudence of David Hume and Adam Smit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p. 77.

다. 이러한 의견을 반박하면서 등장한 최근의 “새로운 관점” 연구자들은 주로 스미스의 신적 섭리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그의 사회에 대한 탐구, 특히 정치경제학적 이론과 연결되는지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다.¹³⁾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섭리가 사회적 차원에서 구현되는 과정에서 인간 개인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 특히 인간의 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우리가 스미스의 논의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스미스의 글래스고 대학 도덕철학 강의가 그러했듯, 자연신학적 논의와 정치경제학적 논의를 연결하는 인간 본성과 도덕의 본질에 대한 스미스의 목소리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바로 “새로운 관점” 연구가 놓치고 있는 중요 연결고리로서 스미스의 인성론을 탐구하고자 한다. 섭리관을 바탕으로 스미스의 도덕이론을 유기적으로 재구성해낸다면, 스미스의 사회이론을 종교적 맥락에서 재해석하고자 시도하는 “새로운 관점”의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갖추게 될 뿐 아니라 스미스의 인간과 사회에 대한 통찰을 다시금 온전히 복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논문은 스미스의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를 당대 영국 국교회의 저명한 성직자이자 도덕 이론가였던 조셉 버틀러(Joseph Butler)의 논의와 비교한다. 버틀러는 성서에 의존하여 기독교의 정당성을 주장하던 종래의 접근법이 아닌, 당시 계몽지식인들이 선호하던 경험과 유비라는 방법을 활용하여 이신론¹⁴⁾과 회의주의에 가장

13) Anthony M. C. Waterman, “Economics as Theology: Adam Smith’s Wealth of Nations”, *Southern Economic Journal*, Vol. 68, No. 4, 2002, pp. 907~921; Joe Blosser, “Christian Freedom in Political Economy: The Legacy of John Calvin in the Thought of Adam Smith”, in Paul Oslington ed., *Adam Smith as Theologian*, New York and Abingdon: Routledge, 2011, pp. 46~60; Paul Oslington, *Political Economy as Natural Theology: Smith, Malthus and Their Follower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8; Peter Harrison, “Adam Smith, Natural Theology, and the Natural Sciences”, in Paul Oslington ed., *Adam Smith as Theologian*, New York and Abingdon: Routledge, 2011, pp. 77~91.

14) 이신론은 신이 세상을 창조한 사실은 인정하되, 창조 이후에는 이 세상에 계시나 기적 등의 수단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신학적 입장을 가리킨다.

설득력 있게 맞선 신학자로 평가된다.¹⁵⁾ 특히 그는 인간의 본성 차원에서 신적 섭리가 구현되는 방식을 비교적 자연적이고 세속적인 기술과 경험적인 접근법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어지는 II장에서는 스미스의 도덕이론을 그의 섭리관을 바탕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왜 버틀러의 인성론과 비교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III장에서는 두 사상가의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를 구조적, 내용적 측면에서 비교한다. 다음 IV장에서는 앞선 비교연구를 바탕으로 섭리가 인간 본성 차원에서 작용한다고 스미스가 이해했던 방식을 재구성해 보고, 이를 통해 그의 ‘보이지 않는 손’ 개념에 내포된 윤리적 함의를 재조명한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전체 논문을 요약하며, 본 연구의 기대효과를 제시한다.

II. 스미스와 버틀러의 인성론 비교의 필요성

스미스의 도덕이론은 ‘공정한 관찰자(impartial spectator)’ 개념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스미스는 이 개념을 ‘양심(conscience)’이라는 용어를 통해 표현하기도 하였다.¹⁶⁾ 여기에서 우리는 18세기 영국에서, 스미스보다 훨씬 이전에, ‘양심’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도덕이론을 확립했던 유명한 도덕학자가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15) 이태하, 『근대 영국철학에서 종교의 문제: 이신론과 자연종교』, 북코리아, 2018, 255쪽.

16) 스미스는 『도덕감정론』의 곳곳에서 ‘양심’을 ‘공정한 관찰자’의 또 다른 표현으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3부 2장에서는 “사정에 정통한 가상의 공정한 관찰자의 법정”이 곧 “자신의 양심의 법정”임을 밝힌다. *TMS*, III.2.32. 또한 당시 일상적으로 쓰이던 ‘양심’이라는 표현이 상대방의 정념을 “승인하거나 부인하는 데 활용되는 어떤 도덕적 능력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그와 같은 능력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으며, 그것의 지시에 합치하거나 반대로 행동한다는 우리의 의식”을 가리킨다고 명백하게 설명하기도 했다. *TMS*, VII.iii.3.15.

있다. 그는 바로 브리스톨(Bristol), 더럼(Durham)의 주교를 역임한 조셉 버틀러이다.¹⁷⁾ 버틀러는 당시의 도덕적, 종교적으로 냉소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인간의 본성과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경험주의적 접근을 통해 설득력 있고 체계적인 주장을 펼쳤다고 평가되는 인물이다.¹⁸⁾

흥미로운 점은 버틀러가 스미스 이전에 이미 인간이 타인에게 선행을 베풀고자 하는 의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위한다 할지라도 신적 섭리에 의해 공익의 증진에 기여하게 된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버틀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타인에 대한 선행에 대한 고려 없이, 단지 명성에 대한 고려만으로 행동할지라도 인간은 때로 공익에 기여한다. …… [이때] 그들은 분명히 또 다른 손, **섭리의 손(hands of Providence)**의 도구일 뿐이고, 그들 자신의 관점이나 의도가 아닐지라도 개인의 보존과 사회의 이익이라는 목적을 달성한다.¹⁹⁾

이는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자신의 자본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이윤을 추구하고자 행위하는 상인이 공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선한 의도 없이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그것을 달성하게 된다는 주장을 하기 40년 전에 발표된 것이다.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7) 버틀러는 “윤리사상사에 있어 가장 위대한 도덕철학자의 한 사람”이자, “특히 양심을 윤리이론의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시킨 학자”로 평가받는다. 박찬구, 「양심에 대한 연구: 조셉 버틀러(J. Butler)의 양심론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3집, 1998, 2쪽.

18) Charlie D. Broad, *Five Types of Ethical Theor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30, p. 53.

19) Joseph Butler, *Fifteen Sermons Preached at the Rolls Chapel*. Grand Rapids, MI: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1827[1736], p. 20. <http://www.ccel.org/ccel/butler/sermons.html>. 강조는 저자. 앞으로는 이 문헌을 본문에서는 『설교』로, 인용시에는 *Sermons*로 표기한다. 이 논문에 인용된 『설교』의 텍스트는 모두 저자가 직접 번역하였다.

그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려고 의도하지도 않고, 공공의 이익을 그가 얼마나 촉진하는지도 모른다. 외국 노동보다 본국 노동의 유지를 선호하는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고, 노동생산물이 최대의 가치를 갖도록 그 노동을 이끈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다. 이 경우 그는, 다른 많은 경우에서처럼, **보이지 않는 손(an invisible hand)**에 이끌려서 그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 그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흔히, 그 자신이 진실로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려고 의도하는 경우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그것을 증진시킨다.²⁰⁾

스미스와 버틀러가 ‘양심’ 또는 ‘양심’에 상응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한 도덕이론 체계를 제시했다는 것 외에도 사회적 차원에서 신적 섭리가 펼쳐지는 방식에 대해서도 유사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스미스 사상의 종교적 맥락을 확인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스미스 사상을 재구성하고자 하는 이 논문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재료로서 버틀러의 적합성을 부각시킨다.

스미스가 개인의 이익 추구가 공익의 증진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신적 섭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텍스트의 표면적 확인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스미스의 전체 사상이 종교적 토대에 근거해있다고 선불리 주장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신적 섭리와 사회적 작동 원리에 대한 스미스의 주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고리로서 기능하는 인간 본성과 도덕에 대한 그의 생각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스미스의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를 18세기 영국의 개혁신학적 토대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체계적으로 전개된 버틀러의 이해와 비교하여 그 구조적, 내용적 유사성을 밝혀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스미스 사상의 종교적 토대를 더욱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의 전체 사상을 더욱 심층적으로 재

20) *WN*, IV.ii. 강조는 저자.

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스미스가 『도덕감정론』에서 버틀러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지만, 많은 영향력 있는 연구자들이 스미스의 도덕이론이 다양한 측면에서 버틀러의 영향을 받았음을 시사한 바 있다. 1976년 『도덕감정론』의 글래스고 판본의 편집자들은 서론에서 ‘양심’, ‘동감(sympathy)’과 같은 개념을 다룰 때 스미스가 버틀러와 유사한 방식으로 설명한다고 지적하였다.²¹⁾ 이들은 또한 『도덕감정론』의 각주에서 특정 구절들이 버틀러의 저작을 떠오르게 한다고 기술하기도 하였다.²²⁾ 이외에도 다수의 연구자들이 스미스와 버틀러의 도덕이론의 유사성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언급하였다.²³⁾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스미스와 버틀러의 사상을 비교한 연구는 놀라울 정도로 적다. 맥클라클랜(Alice MacLachlan)은 버틀러와 스미스

21) David D. Raphael and Alexander L. Macfie, “Introduction to Adam Smith”, in Adam Smith,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Indianapolis: Liberty Fund, 1982[1759]. 스미스의 도덕이론 체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개념은 ‘공정한 관찰자’와 ‘동감’이고, 앞에서(각주 16) 설명하였듯이 스미스는 ‘양심’을 ‘공정한 관찰자’와 교환적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글래스고 편집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스미스 도덕이론에서 ‘양심’과 ‘동감’ 개념이 버틀러의 개념과 유사하다면, 두 도덕이론 체계의 유사성을 넘어서, 스미스가 버틀러로부터 받은 학문적 영향을 의심해볼 수 있다.

22) Adam Smith,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Indianapolis: Liberty Fund. 1982[1759], p. 14, p. 44, p. 164의 각주를 참조하라.

23) 다음을 참조하라: Stephen Darwall, “Sympathetic Liberalism: Recent Work on Adam Smith”,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Vol. 28, No. 2, 1999, p. 150; Samuel Fleischacker, “True to ourselves? Adam Smith on self-deceit”, in Fonna Forman-Barzilai ed., *Adam Smith Review*. Vol. 6,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2. pp. 75~92; Charles L. Griswold, *Adam Smith and the Virtues of Enlighten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 117; Luigi Turco, “Moral sense and the foundations of morals”, in Alexander Broadie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the Scottish Enlightenmen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p. 147~149. 이 연구들은 스미스와 버틀러의 도덕이론 간 유사성에 대해 피상적으로 언급했을 뿐, 이 주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탐구하지는 않았다.

의 도덕이론이 분노(resentment)라는 감정과 정의(justice)라는 미덕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 내용적으로 유사하지만 논증 방식에 있어서는 양자 간에 차이가 존재함을 지적하였다.²⁴⁾ 한편 오슬링턴(Paul Oslington)은 최근 저서에서 버틀러의 학문적 작업이, 다른 17~18세기 신학자들의 작업과 더불어, 스미스 이전에 정치경제학의 신학적 뿌리를 형성했음을 밝힌 바 있다.²⁵⁾ 하지만 이 책에서 버틀러와 스미스의 비교에 할애된 쪽수는 불과 몇 장에 불과하고, 그조차도 두 사상가의 저서에서 발견되는 유사한 구절을 병렬적으로 제시하는 데 그칠 뿐, 스미스와 버틀러의 도덕이론에 관한 심층적인 비교연구를 수행하지는 않았다.

III. 스미스와 버틀러의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

스미스와 버틀러의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는 구조적, 내용적 측면에서 비교해 볼 수 있다. 구조적으로 스미스와 버틀러는 인간 본성이 3단계의 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인간 본성을 이루는 다양한 요소들 간에는 위계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이러한 위계적 체계가 반성적 원리(reflective principle)를 정점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한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1. 인간 본성의 3단계 체계

스미스와 버틀러는 공통적으로 인간의 심성이 하나의 체계(system)를

24) Alice MacLachlan, “Resentment and moral judgement in Smith and Butler”, in Vivienne Brown, Samuel Fleischacker eds., *Adam Smith Review*, Vol. 5,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0, pp. 161~177.

25) Paul Oslington, *Political Economy as Natural Theology: Smith, Malthus and Their Follower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8.

이루고 있다고 보았다. 이 인간 본성의 체계는 가장 하위 차원을 구성하는 다양한 정념들(passions),²⁶⁾ 그 상위에 존재하며 정념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기애적 또는 이타적 애착(selfish and altruistic affections), 그리고 최상위에서 모든 것을 권위 있는 방식으로 주재하는 반성적 원리의 3단계로 구성된다. 버틀러는 이 반성적 원리를 ‘양심’이라고 불렀고, 스미스는 이것을 ‘양심’에 상응하는 개념인 ‘공정한 관찰자’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3단계는 반성적 원리를 정점으로 한 위계적 성격을 지니고, 이는 곧 인간의 덕(virtue)과 긴밀히 연결된다. 스미스와 버틀러는 인간의 덕을 반성적 원리가 하위의 정념들을 관리할 때의 인간의 행위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동물과 달리 인간에게만 이러한 반성적 원리가 본성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덕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졌다고 본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의 도덕철학 체계에서 덕은 인간의 본성에 부합한 것이고, 반대로 악덕은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 된다.

1) 1단계: 정념

스미스는 『도덕감정론』의 서두에서 인간 본성이 다양한 종류의 정념들로 구성된다는 것을 밝히며, 그것을 신체에서 유래된 정념, 상상의 특수한 경향이나 습관에서 유래된 정념, 비사회적인 정념, 사회적인 정념, 그

26) 이 논문에서는 ‘passion’을 ‘정념(情念)’으로 번역한다. 18세기 영국에서 발간된 영어사전을 살펴보면 ‘passion’의 첫 번째 뜻으로 “외부 작용에 의해 야기되는 어떤 (심성의) 효과 [로크의 철학에서 사용되는 용법] (any effect caused by external agency [Locke])”를 제시한다. Samuel Johnson, *A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3rd edition), 1768. 로크의 저작을 비롯하여 로크의 영향을 받은 영국 경험주의자인 흄의 저서의 국내 번역본에서 ‘passion’을 ‘정념’으로 번역하는 바, 이 연구도 ‘정념’이라는 번역어를 채택했다. ‘정념’은 감정을 중심에 두면서도 감정에 의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생각을 아우를 뿐 아니라, 두 가지의 미묘한 상호작용을 가리키는 용어이므로, 스미스의 도덕이론에서 감정 그 자체와 감정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생각이 도덕판단의 기초적 재료가 된다는 부분과 잘 상응한다고 할 수 있다. 스미스와 버틀러는 인간 본성의 하위체계를 구성하는 ‘정념(passion)’을 ‘욕구(appetites)’, ‘충동(impulses)’, ‘감정(sentiments)’ 등의 용어들과 교환적으로 사용한다.

리고 이기적인 정념으로 각각 나누어 설명한다.²⁷⁾ 그리고 모든 정념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 피조물에게 주어진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생명에 대한 사랑과 죽음에 대한 공포, 종족의 존속과 영속성에 대한 욕구와 종족의 완전한 소멸 의도에 대한 반감”은 “자기보존과 종족번식”이라는 “위대한 목적”을 위해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에게 창조자가 부여한 것이다.²⁸⁾

버틀러 역시 상위차원의 자기애적, 이타적 경향성과 차별되는 인간 본성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로서 정념을 제시한다. 충동(impulses), 욕구(appetites)라고도 표현되는 정념은 버틀러의 이론에서 외적 대상들과 관련된 감정이나 경향성을 의미한다.²⁹⁾ 이 맹목적인 경향성은 이기적이거나 이타적인 목적을 의도적으로 지향하지 않지만, 자기도 모르게 사적 이익뿐만 아니라 공적 이익에 기여하기도 한다.³⁰⁾ 버틀러에 따르면 이러한 정념은 인간과 동물이 공유하는 본성의 부분으로,³¹⁾ 이는 모든 개체와 종(species)에 대한 창조주의 보살핌과 사랑을 잘 보여준다.³²⁾

2) 2단계: 자기애적 · 이타적 애착

스미스와 버틀러는 정념보다 상위차원에 존재하는 인간 본성의 요소로 자기애적이거나 이타적인 경향성을 지적한다. 다양한 정념들이 재료라면, 이러한 경향성은 그것을 바탕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 또는 지향하는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학설들이 이 두 가지 상반된 인간의 본성 중 하나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만으로 덕을 설명하려 시도했던 것과 달리³³⁾ 스미스와 버틀러는 두 가지 경향성이 특정 조건에서 서로 충돌하지

27) TMS, I.i~ii.

28) Ibid., II.i.5.10.

29) 박찬구, 「양심에 대한 연구: 조셉 버틀러(J. Butler)의 양심론을 중심으로」, 8쪽.

30) Sermons, p. 19.

31) Ibid., p. 6.

32) Ibid., p. 20.

않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일치한다고 생각했다.

스미스의 경우 이러한 두 가지 인간 심성의 경향성을 “이기적 애착(selfish affections)”과 “자혜적 애착(benevolent affections)”으로 불렀다.³⁴⁾ 전자는 “우리 자신의 행복에 대한 관심”을, 후자는 “다른 사람의 행복에 관한 관심”을 가리킨다.³⁵⁾ 스미스는 이 두 가지 경향성이 인간이 본원적으로 지닌 ‘동감(sympathy)’의 능력에 의해 발현되며,³⁶⁾ 각각 서로 다른 종류의 덕성을 낳는 토대가 된다고 설명한다.

우리 자신의 행복에 관한 관심은 우리에게 실천적 지혜(prudence)³⁷⁾

33) 이성이 아닌 감정을 바탕으로 인간의 본성을 연구했던 영국의 경험론적 학문 분위기에서 인간의 도덕이란 결국 다양한 정념들의 발현과 충돌 가운데 어떤 정념이 다른 정념들보다 우세한가, 혹은 우세해야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였다. 당시 도덕에 관한 논의의 지형은 홉스(Tomas Hobbes)의 이기적 본성과 샤프츠베리(Anthony Ashley Cooper, 3rd Earl of Shaftesbury)의 이타적 본성에 대한 주장으로 양분되었다. 홉스의 경우 이기적 애착(selfish affections)을 인간 본성의 가장 주요한 특징으로 보았고, 그로 인해 인간들은 사회계약을 통해 강제력을 가진 국가(tyrannical state)를 수립하기 전에 서로 간의 투쟁과 반목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보았다. 이러한 홉스의 주장은 17~18세기에 걸쳐 큰 영향력을 끼쳤다. 이에 반대하며 등장한 샤프츠베리는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내재된 사회적 애착(social affections)을 강조하였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자생적으로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존재로,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내재된 도덕감(moral sense) 때문이다. 샤프츠베리는 도덕감을 옳고 그름에 대한 자연적인 감각으로 정의하며, 도덕감의 존재 때문에 인간은 자신이 옳은 일을 하거나 타인의 올바른 행위를 볼 때는 만족감을 느끼고 반대의 경우에는 불쾌감을 느낀다고 설명하였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샤프츠베리의 입장은 스미스의 스승인 허치슨(Francis Hutcheson)에게 전해지면서 인간의 자기애적 경향성은 절대 덕의 기반이 될 수 없다는 논리로 굳어졌지만, 스미스는 허치슨의 이러한 견해를 직접적으로 비판하였다. *TMS*, VII.ii.3.13.

34) *Ibid.*, VII.ii.Intro.4.

35) *Ibid.*, VI.Concl.1.

36) 스미스는 인간이 일차적으로 자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적합하도록 본성을 부여받았지만 본원적으로 주어진 ‘동감’의 능력에 의해 타인의 정념 또한 자신의 정념처럼 느낄 수 있게 됨으로써 자신의 행복뿐만 아니라 타인의 행복도 함께 지향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설명한다. *Ibid.*, VI.ii.1.1.

37) 18세기 영국에서 ‘prudence’는 “실천에 적용되는 지혜(wisdom applied to practice)”

의 덕성을 권장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에 관한 관심은 정의(justice)와 자혜(beneficence)의 덕성을 권장한다. 후자의 미덕 가운데 정의는 우리가 타인에게 침해를 끼치지 않도록 억제하며, 자혜는 타인의 행복을 촉진하도록 고무시킨다.³⁸⁾

하지만 스미스는 인간의 이기적 혹은 이타적 본성 자체가 덕은 아니며, 덕은 오로지 행위의 적정성(propriety)에 존재한다고 주장한다.³⁹⁾ 다시 말해 행위의 적정성이 성취되는 정도에 비례하여 인간의 자기애적 또는 이타적인 경향성이 덕으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아야, 실천적 지혜의 덕을 획득하는 데 적합한 사람이 곧 자혜의 덕을 획득하는 데에도 가장 적합하다는 스미스의 일견 모순적인 주장⁴⁰⁾이 이해될 수 있다.

버틀러는 인간의 본성에 존재하는 두 가지 경향성, 즉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respecting self)” 성향과 “사회를 존중하는(respecting society)” 성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⁴¹⁾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과 건강, 그리고 사적인 편익을 위해 의도되어

(Johnson, 1768), “구체적 사건들을 다루는 지혜(wisdom in managing affairs)” (Bailey, 1775)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prudence’를 ‘실천적 지혜’로 번역한다. Samuel Johnson, *A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3rd edition), 1768; Nathan Bailey, *Universal Etymological English Dictionary* (1775 edition), 1775.

38) *TMS*, VI.Concl.1.

39) 스미스는 이기적이든 자혜적이든 간에 그 애착이 적절한 관리와 지도 아래에 있다면(proper government and direction), 차별없이 모든 애착에 덕의 특성이 깃들 수 있다고 설명한다. Ibid., VII.ii.Intro.4. 여기에서 관리와 지도의 주체는 ‘공정한 관찰자’이고, 이 내면의 반성적 원리가 인간의 행위의 적정성을 매 순간 규정하게 된다. 이는 이어질 ‘3단계’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된다.

40) “가장 완전한 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 은 그 자신의 본래적이고 이기적 감정들을 가장 완전하게 통제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본원적 감정 및 동감적 감정 모두에 대해 가장 섬세한 감수성을 보이는 사람이다. …… 이러한 두 유형의 덕목 가운데 전자에 속하는 덕목을 획득하는 데에 본래 가장 적합한 사람은 마찬가지로 후자를 획득하는 데에도 가장 적합하다.” Ibid., III.iii.35~36.

41) *Sermons*, p. 17.

졌다는 것만큼이나 실재적인, 그리고 같은 종류의 인간 본성의 조짐(the same kind of indications in human nature)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사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동료 피조물들에게 이로움을 주고자 창조되었다는 것이다.⁴²⁾

그리고 스미스와 유사하게 버틀러 역시 이 두 가지 성향이 구분되기는 하지만 서로 대립하지는 않으며, 양자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 함께 긍정적으로 발현된다고 설명한다.

자혜(benevolence)와 자기애(self-love)는 서로 다르지만, 우리 자신들에 대한 가장 큰 만족이 적절한 정도의 자혜를 가지는 것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완벽하게 동시에 발생한다(they are so perfectly coincident). …… 한 가지를 다른 한 가지와 관계없이 증진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두 가지의 상호적 동시 발생(their mutual coinciding)은 우리가 그 양자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하나의 동등한 증거가 된다.⁴³⁾

이러한 버틀러의 설명은 두 가지 종류의 덕이 서로 충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함께 추구될 수 있다는 스미스의 주장을 연상시킨다. 그리고 버틀러 역시 이기적 또는 이타적 경향성 자체가 덕이 아니며, 그것의 균형을 야기하는 상위차원의 원리가 덕의 본질이라는 주장을 이어간다. 그렇다면 스미스의 도덕이론 체계에서 행위의 적정성을 가져오고, 버틀러의 체계에서 자기애적·이타적 경향성의 균형을 이루어 인간이 진정한 덕을 성취하게 하는 그 조건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반성적 원리가 하위의 다양한 요소들을 권위 있는 방식으로 주재하는 것이다.

42) Ibid., p. 17.

43) Ibid., p. 19.

3) 3단계: 반성적 원리

스미스와 버틀러는 반성적 원리가 인간 본성의 가장 상위 원리로서 존재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인간이 주체적으로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스미스의 경우 이 반성적 원리를 ‘공정한 관찰자’라는 표현으로, 버틀러는 ‘양심’이라는 용어로 지칭했다.

스미스는 『도덕감정론』에서 ‘공정한 관찰자’를 ‘양심’을 비롯한 다양한 표현⁴⁴⁾을 사용하여 기술하며, 타인이나 자기 자신의 정념을 동감의 기제를 통해 승인하거나 부인함으로써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반성적 원리, 혹은 도덕적 능력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능력 없이는 이기적이든 이타적이든 간에 모든 정념은 단순히 그 자신의 만족을 위해 몰두할 뿐 덕을 산출해낼 수 없다.⁴⁵⁾ 스미스에 따르면 인간은 상대방의 행위의 동기가 되는 감정에 동감함으로써 그 행위를 승인하며, 이 방식은 자기 자신의 행위의 승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여기에서 전자의 경우에는 내가 타인에게 ‘공정한 관찰자’가 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나 스스로에게 ‘공정한 관찰자’가 됨으로써 도덕적 판단을 내리게 된다.

우리가 스스로를 타인의 상황에 두고, 말하자면 그의 눈과 위치로부터 이를 지켜볼 때 우리의 행위에 영향을 준 감정과 동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조하거나 동감할 수 있는지 동감할 수 없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위를 승인하거나 부인하게 된다.⁴⁶⁾

44) 『도덕감정론』에서는 ‘양심’ 외에도 ‘공정한 관찰자’를 가리키는 다양한 표현들이 사용된다. 예를 들면, “마음속의 인간(the man within the breast)”, “행위의 위대한 심판관이자 판정인(the great judge and arbiter of their conduct)”, “마음속에 있는 반신(this demigod within the breast)”(*TMS*, III.2.32), “결백과 평정심의 위대한 보호자(the great guardian of innocence and tranquillity)”(III.2.33), “마음속의 위대한 동거인(the great inmate of breast)”, “내면의 재판관(this judge within)”(III.3.1), “이성(reason)”, “원칙(principle)”, “마음속의 거주자(the inhabitant of the breast)”, “내면의 인간(the man within)”(III.3.4), “내면의 신의 대리인(those vicegerents of God within us)”(III.5.6) 등이 있다.

45) Ibid., VI.Concl.2.

한편 버틀러는 ‘양심’을 자기 자신의 행위를 승인하거나 부인하는 내면의 반성적 원리라고 정의한다.⁴⁷⁾ 그리고 인간이 이러한 반성적 원리의 지침을 따를 때 덕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⁴⁸⁾ 스미스가 ‘공정한 관찰자’의 작용 기제를 내·외부적으로 적용하여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행위의 선악을 판별하는 과정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설명한 것과 달리 버틀러는 ‘양심’을 주로 자신의 행위의 승인과 부인에 국한하여 설명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버틀러가 당시 상식적으로 쓰이던 ‘양심’의 의미를 그대로 가져와 사용한 것에 기인한다고 여겨진다.⁴⁹⁾ 또한 버틀러는 설명 방식에 있어서도 청자 또는 독자들이 일상적 경험을 토대로 쉽게 유추하거나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다소 평이한 방식으로 설명을 전개한다.⁵⁰⁾

인간 본성에 이 반성의 원리, 또는 양심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한 사람이 무고한 사람을 고통 속에서 해방시킨다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이후에 같은 사람이 화의 걱정 속에서 공격의 정당한 이유 없이 어

46) Ibid., III.1.2.

47) *Sermons*, p. 21.

48) Ibid., p. 9.

49) 18세기 영국에서 ‘양심(conscience)’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선함과 악함을 판단하는 지식 또는 능력(the knowledge or faculty by which we judge of the goodness or wickedness of ourselves)”(Johnson, 1768)으로 이해되었다. 특히 영혼을 이성적(rational), 기개적(spirited), 욕구적(appetitive) 부분으로 나누는 고대 그리스의 영혼 삼분설을 수용·발전시킨 스콜라주의(Scholasticism)의 영향으로, 인간의 영혼 중 진리를 인식하는 기능을 하는 이성혼(rational soul)과 관련지어 ‘양심’의 의미를 이해하기도 했다. 이러한 전통에 따르면 양심이란 “이성혼이 자신의 모든 행위에 대해 내리는 견해 또는 판결(the opinion or judgement which the rational soul pass upon all her actions)”(Bailey, 1775)을 의미하였다. Samuel Johnson, *A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3rd edition), 1768; Nathan Bailey, *Universal Etymological English Dictionary* (1775 edition), 1775.

50) 박찬구는 버틀러의 도덕이론이 가진 한계로서 “양심 개념을 지나치게 상식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실제 삶에 있어서 그것을 구체적인 지침으로 삼기에는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박찬구, 「양심에 대한 연구: 조셉 버틀러(J. Butler)의 양심론을 중심으로」, 14쪽.

면 사람에게 큰 악행을 저지른다고 가정해 보자. …… 그리고 이 서로 다른 두 가지 행위를 한 사람이 후에 그 자신의 행위를 그 자신에게 미칠 결과에 대한 고려 없이 냉정하게 반성(coolly reflect upon)하도록 하자. 이 행위들을 그가 …… [특정 방식으로] 승인하거나 부인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어떤 평범한 인간이라면 이 서로 다른 행위들에 대해서 같은 방식으로 느낄 것이라는 것은 논박되어야 하는 허위라고 하기엔 너무나 명백하다. 그러므로 인류에게는 이 반성의 원칙과 양심이 존재한다.⁵¹⁾

인간이 도덕적 관리(moral government)를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도덕적 본성과 도덕적으로 인식하고 행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우리가 이러한 도덕적 승인과 부인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경험으로부터도, 그리고 (다른 인간들과의) 상호작용 간에도 그것을 인식한다는 것으로부터도 확실한 것이다. ‘옳은, 그른, 혐오스러운, 정감 있는, 비열한, 훌륭한’의 단어들로부터 우리는 이 도덕적 능력을 불가피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세상의 공통적 언어, 그리고 공통적 행동의 대부분이 이러한 도덕적 능력의 추정에 근거하여 형성되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⁵²⁾

스미스와 버틀러가 반성적 원리를 설명하는 방식이나 내용에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은 스미스가 교양 있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도덕철학을 가르치던 교수이고 『도덕감정론』이 오랜 기간 숙고를 통해 작성된 글이라는 점, 그리고 버틀러가 다양한 대중들을 대상으로 종교적 가르침을 펴던 설교자이자 이것이 그 설교문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두 학자가 전체 인간 본성 체계에서 반성적 원리가 가진다고 여긴 권위에 관한 것이다.

51) *Sermons*, p. 21.

52) Joseph Butler, “Dissertation 2: Of the Nature of Virtue”, in *The Analogy of Religion*, London, 2005[1736], p. 1. http://www.sophia-project.org/uploads/1/3/9/5/13955288/butler_virtue.pdf

2. 반성적 원리의 권위

스미스와 버틀러의 인성론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동식물과 달리 인간에게만 부여된 반성적 원리와 그것이 인간 심성체계 내에서 가지는 권위에 있다. 스미스는 그 자신이 ‘공정한 관찰자’로 부르는 이러한 보편적 도덕적 능력이 “현세에서의 우리의 행동에 방향을 제시하는(for the direction of our conduct in this life)” 권위를 지니고 있으며, 이 능력은 “이러한 권위를 나타내는 가장 명백한 증표들(the most evident badges of this authority)”을 보여준다고 설명한다.⁵³⁾

이 증표들은 그것들이 우리의 모든 행동의 최고의 중재인이 되도록, 우리의 모든 감각, 정념, 욕구를 감독하도록, 이러한 감정들이 각각 어느 정도 만족되거나 억제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에 설정되었다. …… 마음의 어떠한 다른 능력이나 행위원리는 서로 다른 능력이나 행위원리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다. 사랑은 분개심에 대해 판단하지 않으며, 분개심 역시 사랑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열정은 서로에게 상반될 수 있지만, 서로를 승인한다거나 부인한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다. 지금 우리가 고려하는 도덕적 능력의 독특한 임무는 우리 본성 속에 있는 모든 다른 원리에 관해 판단하고 비난이나 갈채를 보내는 것이다.⁵⁴⁾

버틀러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는 인간 본성을 구성하는 욕구, 정념, 애착, 반성적 원리 등의 다양한 요소들을 단순히 관찰하여 그 존재를 알아낸다고 해서 인간 본성의 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인간 본성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부분들이 서로 간에 가지는 관계, 무엇보다도 반성적 원리가 가지는 우위, 즉 그 권위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⁵⁵⁾

53) TMS, III.5.5.

54) Ibid., III.5.5.

양심 또는 반성(reflection)은 명백하게 나머지 요소들[욕구, 정념, 애착 등]에 대해서 권위의 표시(marks of authority)를 지니며, 그것들의 충족을 허락하거나 혹은 금하기 위하여 완벽하게 지시를 내린다.⁵⁶⁾

이 우월한 반성의 원리 또는 양심은 의논이나 충고를 기다리지 않고 주인처럼 그 자신을 행사한다(magisterially exerts itself).⁵⁷⁾

스미스와 버틀러의 인성론에서 반성적 원리는 덕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스미스의 반성적 원리인 내면의 ‘공정한 관찰자’는 “마음속에 있는 반신(this demigod within the breast)”⁵⁸⁾ 또는 “우리 내면의 신의 대리인(those vicegerents of God within us)”⁵⁹⁾ 등으로 묘사되며,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다양한 정념들을 ‘공정한 관찰자’의 관점으로 경영할 때 인간의 다양한 하위 정념들은 그 자체로 덕의 원천이 된다고 그는 설명한다. 버틀러 역시 인간이 내면의 반성적 원리인 ‘양심’의 안내에 따를 때 진정으로 덕스러운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하며, 이때의 ‘양심’을 “우리 내면의 신의 목소리(the voice of God within us)”⁶⁰⁾라고 표현한다.

IV. ‘보이지 않는 손’의 인간 본성 차원에서의 작용 방식

지금까지 우리는 스미스의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를 그보다 약간 앞선 동시대에 활동했던 버틀러의 인성론과 비교함으로써 더욱더 선명하게 그려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스미스가 제시하고 있는 인간 본성 체계는 그

55) *Sermons*, p. 5.

56) *Ibid.*, p. 7.

57) *Ibid.* p. 28.

58) *TMS*, III.2.32.

59) *Ibid.*, III.5.6.

60) *Sermons*, p. 56.

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비유하는 신적 섭리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스미스는 인간 본성의 다양한 요소들이 신적 섭리가 인간 본성 차원에서 구현된 결과라고 생각했다. 스미스에 따르면 모든 정념들은 무엇이든 간에 그 자체로 신의 신성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존중되어야 한다.⁶¹⁾ 예를 들어 “굶주림과 갈증의 욕구, 쾌락과 고통, 더위와 추위로 인한 유쾌하거나 불쾌한 감각들과 같은 것들도 자연의 음성(the voice of Nature herself)으로 전달되는 여러 가르침”이며, 이것들은 인간이 “무엇을 선택해야만 하고 무엇을 회피해야만 하는 가를 지시해”준다.⁶²⁾ 마찬가지로 신은 인간에게 ‘동감’의 능력을 부여하여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행복도 함께 지향하도록 설계했으며,⁶³⁾ 이러한 다양한 인간 본성의 요소들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공정한 관찰자’의 능력을 부여함으로써 옳고 그름을 판단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다양한 요소들의 존재 자체가 인간 본성 차원에서 구현되는 신적 섭리의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는다. 스미스는 인간 본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 간에는 ‘공정한 관찰자’를 정점으로 한 위계적 차등이 있으며, 그 차등이 지켜질 때 인간과 인간 사회는 신적 섭리의 정상적인 운행에 기여하게 되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세상에 대한 신의 목적을 오히려 방해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61) 버틀러의 『설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절들이 이러한 스미스의 견해와 상응한다: “신의 숨씨로 빚어졌다고 여겨지는 인간 본성은, 내가 생각하기에, 그를 인간으로 만든 신의 형상(the image of God)으로 인해 신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인간이 악의와 복수의 지독한 악덕을 맞닥뜨리는 곳에서 생겨나는 정념, 심지어 그런 정념까지도 신에 의해 우리 본성 안에 심어진 것이므로 결백할(innocent) 뿐만 아니라 일종의 심성의 관대한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Sermons*, pp. 71~72.

62) *TMS*, VI.i.1

63) *Ibid.*, VI.ii.1.1.

우리의 도덕적 능력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면, 우리는 인류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필연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며,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신과 협력하여 우리의 능력이 미치는 한 신의 계획을 촉진시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의 도덕적 능력의 지시와는 반대로 행동한다면, 우리는 자연의 창조자가 세계의 행복과 완성을 위해 수립해놓은 계획을 어느 정도 방해하는 듯하며, 또한, 말하자면, 우리가 어느 정도 신의 적대자임을 스스로 선언하는 듯하다.⁶⁴⁾

결론적으로 스미스는 신적 섭리가 사회적 차원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인간 본성에 부합하게 행위해야 한다고 보았다. 달리 말하면, 개개인이 내면의 ‘공정한 관찰자’가 승인할 수 있도록, 즉 도덕적으로 행동해야만 신이 미리 정해 둔 본래의 목적인 인류의 행복이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다른 모든 이성을 갖춘 피조물뿐만 아니라 인류의 행복이 이들을 창조한 자연의 창시자에 의해 의도된 본래의 목적인 듯하다. 어떠한 다른 목적도 필연적으로 그의 속성으로서 귀속되고 있는 최상의 지혜와 신의 자혜에 걸맞지 않는 듯하다.⁶⁵⁾

이처럼 신적 섭리가 인간 본성 차원에서 작용한다고 스미스가 이해했던 방식을 재구성해 보면, ‘보이지 않는 손’ 개념에 내포된 윤리적 함의를 발견할 수 있다.

64) Ibid., III.5.7.

65) Ibid., III.5.7.

V. 맺음말

『도덕감정론』에서 스미스는 반성적 원리를 정점으로 하는 인간 본성의 3단계 체계를 바탕으로 인간의 자기 이익 추구가 덕으로 간주될 수 있는 한계 또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즉 개인의 이익 추구는 내면의 ‘공정한 관찰자’의 관점을 토대로 관리될 때 도덕적으로 승인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개인과 사회의 이익에 공헌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만 시민들의 자기 이익 추구가 결국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국부의 증진으로 연결된다는 스미스의 주장이 온전히 이해될 수 있다. 만약 스미스 사상의 종교적 측면을 강조하는 “새로운 관점” 연구들이 섭리가 사회적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인간 개인이 수행해야 하는 도덕적 역할을 간과한다면, 이는 다시금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윤리적 측면을 배제하고 시장의 자율적 기능만을 강조하여 여러 가지 폐해를 낳았던 시장우선주의적 이념을 뒷받침하도록 잘못 이끌게 될 위험성이 있다.

스미스는 『도덕감정론』을 통해서 내면의 ‘공정한 관찰자’가 정념에 대한 동감 기제를 통해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과정을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행위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외부로 방향을 돌려 타인의 도덕적 행위까지 판단하는 기제로써 체계적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그의 『도덕감정론』이 단순히 도덕이론의 기술을 넘어서, 이후 『국부론』 등의 저서를 통해 스미스가 수립하게 되는 방대하고 체계적인 정치·경제이론의 토대로서 기능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논문은 차후 다음의 두 가지 측면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근대 경제학의 성립과 함께 태동한 사실 추구적 사회과학이 가치의 부재에 의해 직면하고 있는 한계와 그 극복에 관한 것이다. 스미스의 『국부론』이 근대 경제학의 성립에 미친 영향과 근대 경제학의 발전으로 촉발된 경험적 사회과학의 태동을 고려할 때, 스미스가 『국부론』을 저술하던 시기, 즉 사회과학의 원류를 거슬러 올라가면 당위가

사실의 맥락을 제공하고, 다시금 사실이 당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과학이 가치의 문제를 진지하게 숙고하길 요청받는 현시대에 다시금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둘째로, 스미스의 사상이 고전적 자유주의 정치사상의 성립에 끼친 영향을 고려할 때, 이 연구는 가치중립적, 혹은 세속적이라고 믿어지는 현대 자유주의의 기원에 존재했던 종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기초를 살펴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 참고문헌

<자료>

1. 원자료

애덤 스미스 저, 김수행 역, 『국부론(상)』, 비봉출판사, 2018.

애덤 스미스 저, 김광수 역, 『도덕감정론』, 한길사, 2016.

Butler, Joseph, *Fifteen Sermons Preached at the Rolls Chapel*. Grand Rapids, MI: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1827[1736]. <http://www.ccel.org/ccel/butler/sermons.html>

_____, “Dissertation 2: Of the Nature of Virtue”, in *The Analogy of Religion*. London, 2005[1736], http://www.sophia-project.org/uploads/1/3/9/5/13955288/butler_virtue.pdf

Smith, Adam,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Indianapolis: Liberty Fund, 1981[1776].

_____,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Indianapolis: Liberty Fund, 1982[1759].

2. 사전

Bailey, Nathan, *Universal Etymological English Dictionary* (1775 edition), 1775, https://books.google.co.kr/books/about/An_Universal_Etymological_English_Dictio.html?id=CFBGAAAAYAAJ&redir_esc=y

Johnson, Samuel, *A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3rd edition), 1768, https://books.google.co.kr/books?id=bXsCAAAAQAAJ&pg=PP9&redir_esc=y#v=onepage&q&f=false

<연구논저>

김광수, 「아담 스미스의 자연신학과 그 방법론적 의미」, 『경제학연구』 43집 2호, 1994, 149~178쪽.

박찬구, 「양심에 대한 연구: 조셉 버틀러(J. Butler)의 양심론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3집, 1998, 1~15쪽.

이영석, 『지식인과 사회: 스코틀랜드 계몽운동의 역사』, 아카넷, 2014.

이태하, 『근대 영국철학에서 종교의 문제: 이신론과 자연종교』, 북코리아, 2018.

Alvey, James E., “The “new view” of Adam Smith and the development of his views over time”, in Geoff Cockfield, Ann Firth, John Laurent eds., *New Perspectives on Adam Smith’s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Cheltenham and Northampton: Edward Elgar, 2007, pp. 66~83.

Blosser, Joe, “Christian Freedom in Political Economy: The Legacy of John Calvin in the Thought of Adam Smith”, in Paul Oslington ed., *Adam Smith as Theologian*, New York and Abingdon: Routledge, 2011, pp. 46~60.

Broad, Charlie D., *Five Types of Ethical Theor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30.

Darwall, Stephen, “Sympathetic Liberalism: Recent Work on Adam Smith”,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Vol. 28, No. 2, 1999, pp. 139~164.

Fleischacker, Samuel, *On Adam Smith’s Wealth of Nations: A Philosophical Compan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_____, “True to ourselves? Adam Smith on self-deceit”, in Fonna Forman-Barzilai ed., *Adam Smith Review*. Vol. 6,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2, pp. 75~92.

Griswold, Charles L., *Adam Smith and the Virtues of Enlighten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Haakonssen, Knud, *The Science of a Legislator: The Natural Jurisprudence of David Hume and Adam Smit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Harrison, Peter, “Adam Smith, Natural Theology, and the Natural Sciences”, in Paul Oslington ed., *Adam Smith as Theologian*, New York and Abingdon: Routledge, 2011, pp. 77~91.

MacLachlan, Alice, “Resentment and moral judgement in Smith and Butler”, in Vivienne Brown, Samuel Fleischacker eds., *Adam Smith Review*. Vol. 5,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0, pp. 161~177.

Oslington, Paul, “Introduction”, in Paul Oslington ed., *Adam Smith as Theologian*, New York and Abingdon: Routledge, 2011, pp. 1~16.

_____, “The ‘New View’ of Adam Smith in Context”, *History of Economics Review*, Vol. 71, No. 1, 2018, pp. 118~131.

_____, *Political Economy as Natural Theology: Smith, Malthus and Their Follower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8.

Raphael, David D. and Macfie, Alexander L., “Introduction to Adam Smith”, in Adam Smith,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Indianapolis: Liberty Fund, 1982[1759].

Turco, Luigi, “Moral sense and the foundations of morals”, in Alexander Broadie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the Scottish Enlightenmen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Waterman, Anthony M. C., “Economics as Theology: Adam Smith’s Wealth of Nations”, *Southern Economic Journal*, Vol. 68, No. 4, 2002, pp. 907~921.

How is the ‘Invisible Hand’ Working at the Level of Human Nature?

-Seeking an Answer by Comparing the Theories of
Human Nature of Smith and Butler-

Kim, Gyeongmin*

Adam Smith’s ‘invisible hand’, which has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the formation of the economic and political order of contemporary society, has recently been interpreted as ‘divine providence’ by several researchers who focused on the religious context of Smith’s thought. These studies, however, do not pay much attention to the role played by individuals in the process of providence being implemented socially. Joseph Butler, a renowned theologian and moralist in eighteenth-century Britain, systematically presented the way divine providence is embodied within human nature with a relatively natural and secular language and an empirical approach, unlike conventional Christian theologians. This paper, by comparing Smith’s theory of human nature with Butler’s, attempts to reconstruct the way Smith understood how providence works at the level of human nature, and explore the ethical implications underlying his concept of ‘invisible hand’.

Key words: Adam Smith, Joseph Butler, Invisible hand, Divine providence, Impartial spectator, Conscience

*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 Diplomacy, Sungkyunkwan University

246 『인문과학』 제77집 2020.5.

필자 E-Mail: gmkim@skku.edu

투고일: 2020년 04월 17일 / 심사완료일: 2020년 05월 04일 / 게재확정일: 2020년 05월 04일